

프랑크푸르트, 기후 적응형 설계 위한 실무지침 마련

<https://frankfurt.de/aktuelle-meldung/Meldungen/Bauvorhaben-zukunftssicher-planen/>
<https://frankfurt.de/themen/klima-und-energie/klimaanpassung/gestaltungssatzung-freiraum-und-klima>
<https://www.hlnug.de/themen/klimawandel-und-anpassung/handlungshilfen/planung-und-planungsrecht>

프랑크푸르트와 헤센 주립 자연 보존, 환경 및 지질학 사무국(이하 HLNUG)은 기후 적응형 설계를 위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 2023년 5월 독일 헤센주 최초로 프랑크푸르트는 ‘열린 공간과 기후를 위한 설계 법령(Gestaltungssatzung Freiraum und Klima)’을 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내에서 이뤄지는 건물 신축과 개조에 대해 기후 적응형 설계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폭우,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열린 공간의 투수설계, 녹지화, 그늘 설치 등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프랑크푸르트와 HLNUG의 기후변화 및 적응센터는 헤센주 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주거지역 기후적응 위한 도시 설계 법령 실무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약 70페이지에 달하는 실무지침은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의 열린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공개하거나 현장에 적합한 관목을 10% 이상 심어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그늘 조성, 녹색 쓰레기통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령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HLNUG은 토지이용계획, 기후적응지역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열린 공간과 기후를 위한 설계 법령을 소개하는 브로슈어
출처: 프랑크푸르트시 홈페이지.
<https://frankfurt.de/themen/klima-und-energie/klimaanpassung/gestaltungssatzung-freiraum-und-klima>(검색일: 2023.12.12.)